

다우코닝, 태양열 자동차 경주 지원

다우코닝(Dow Corning)의 첨단기술 및 벤처 비즈니스 사업부가 미시간대학의 태양열 자동차팀을 지원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2007년 10월 1800마일 구간의 오스트레일리아 아웃백을 가로지르는 태양열 자동차 레이싱 대회를 위한 자동차 설계, 개발 및 지원이 목적이다.

다우코닝은 1만달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1987년 GM에 이어 미국팀으로는 2번째로 1위를 꿈꾸는 150명 이상의 미국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인데, 경주에서 사용할 자동차에 다우코닝의 태양열 소재를 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코닝은 차별화된 솔라 에너지 개발을 위해 셀 제조, 모듈 어셈블리, 설치를 위한 토탈솔루션 패키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MG-Si(Metallurgical 그레이트 Silicone) 및 미시간 소재 험록 세미컨덕터의 결정 실리콘 제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험록 세미컨덕터는 다우코닝, Shin-Etsu Handotai, Mitsubishi Materials의 합작기업으로 세계 최대 다결정 실리콘 제조기업이다.

험록은 현재 다결정 실리콘 수요가 폭주하자 2008년까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5억달러 투자를 진행 중이며, 2012년까지 10억달러를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연 기자>

<화학저널 2007/07/19>